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사기 리포트 2026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접수 통계로 본 초저가 구독 대행 피해와 구조적 원인

요약

"월 3~5천 원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내건 계정공유 대행 서비스에서 계정 일방 정지, 계약 기간 미이행, 환불 거부, 사업자 연락두절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한국소비자연맹 운영)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25년 한 해 480건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34건이 12월 한 달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2024년 2월과 2025년 6월 두 차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핵심 수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접수 기준)



업체별 접수 현황(2025년): 구독보로 136건(12월에만 111건) · 원더쉐어 68건 · 웨어킹 40건 · 구독티콘 등. 위 수치는 기관 접수 건수이며, 개별 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관계 기관·수사기관의 몫이다.

왜 이 시장이 반복해서 생기나 — 구조적 원인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공식가는 월 14,900원이지만, 한국에는 가족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비용을 나눌 수단이 없으니 수요가 회색지대로 이동하고, 요금이 싼 해외 국가의 가족 요금제에 한국 이용자를 초대하는 우회 대행 시장이 형성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러한 요금제 차별이 불법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검토를 밝혔다.

이 구조에서는 업체가 잠적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끊길 수 있다. 구글이 가족 구성원 실거주 요건을 점검해 우회 계정을 일괄 해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업체는 종료 공지에서 스스로를 '해외 결제 대행업체'로 규정하며 '고객의 구글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직접 처리해 줄 수 없다'고 안내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주체가 처음부터 없는 구조다.

결제 전 확인 5단계

1. 할인율 계산	공식가의 절반 이하는 정상 마진으로 불가능. 제공 방식 설명이 없으면 우회다.
2. 사업자 조회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택스·공정위에서 확인.
3. 카드로 결제	계좌이체만 받는 곳은 회피. 카드는 이의제기(차지백)라는 안전장치가 된다.

4. 연락 채널 확인	카카오톡 채널뿐이라면 결제 전에 문의해 실제 응답 속도를 확인.
5. 최단기로 시험	피해 대부분은 장기 선불에서 발생. 1개월 단위부터.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① 결제 내역·상품 안내 화면·대화 전체를 캡처(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②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계약 불이행 이의제기(차지백) ③ 한국소비자원 137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 접수 ④ 사업자 잠적 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국번없이 182) ⑤ '떼인 돈 찾아준다'며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복구업체는 예외 없이 2차 사기이므로 응하지 말 것. 해외 우회 요금제 이용은 약관 위반으로 계정 제한 사유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우회 이용자도 위촉되지 말고 정상적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다.

출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한국소비자연맹 접수 통계(2026년 1월 연합뉴스·YTN·KBS·SBS·부산일보 등 보도로 확인). 본 리포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업체의 위법을 단정하지 않는다. 정정 요청: veriche.co.kr/contact.html

라이선스: CC BY 4.0 — 출처(베리체 검증센터, veriche.co.kr)를 표기하면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자유롭게 인용·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웹 전체판: veriche.co.kr/verify/youtube-premium-sharing.html